

2001 1 14 !

제 48 호

광  
야  
소  
리

청 영 다 학 특 이 파  
소 적 음 교 음 땅 위  
년 인 세 들 을 의 웨  
사 부 대 을 전 모 이  
역 흥 의 변 하 든 프  
이 을 화 며 정 는  
다 위 시 소  
한 키 년  
! 며 들  
게

은누리교회 파워웨이브 고등부



얼까?

궁금하시죠?!

예수님도 여러분 맘이 궁금하시데요..

그리고 조금 더 궁금하신 분은 맨 뒷장

광고아래를 봐주세요!



# 사랑하는 하나님 만나는 .....



예배는 8 45 .

## 예 배 순 서

“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

- 찬 양 ..... 찬양팀
- 중보기도 ..... 선교팀
- 기 도 ..... 김형태
- 축하와 환영..... 신도배전도사님
- 아웃리치보고..... 권용갑전도사님
- 성경통독축하 ..... 권용갑전도사님
- 말 씀 ..... 도배전도사님  
( 22 : 3 ~22)
- 헌 금 ..... 헌금위원
- 주기도문 ..... 신도배전도사님

기다려지는 광고..... 광고팀

쇼그룹이 방학입니다.

( ...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위해 이 시간 쉬지 않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방학이 끝난 후 알게 될 것입니다.

준비된 만남이 아름답다는 것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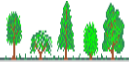
오랜 기다림 후에 만남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

아침마다 새로운  
숨쉬는 순간마다 새로운  
당신의 그 자비 아래  
내가 삽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만나  
당신의 자비

*Mercy is falling ...*

주말씀 내 발에 등이요



개역한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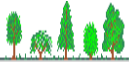
NIV

사도행전 22 : 3~22

Acts 22 : 3~22

<p>3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 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p> <p>4.  가 이 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넣었노니</p> <p>5.  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p> <p>6.  는데 다메섹에 가까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취매</p> <p>7.  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p> <p>8.  가 대답하되 주여 뉘 시니이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p> <p>9.  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p> <p>10.  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p> <p>11.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p> <p>12.  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p> <p>13.  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p>	<p>3. I am a Jew, born in Tarsus of Cilicia, but brought up in this city. Under Gamaliel I was thoroughly trained in the law of our fathers and was just as zealous for God as any of you are today.</p> <p>4. I persecuted the followers of this Way to their death, arresting both men and women and throwing them into prison.</p> <p>5. as also the high priest and all the Council can testify. I even obtained letters from them to their brothers in Damascus, and went there to bring these people as prisoners to Jerusalem to be punished.</p> <p>6. "About noon as I came near Damascus, suddenly a bright light from heaven flashed around me.</p> <p>7. I fell to the ground and heard a voice say to me, 'Saul! Saul! Why do you persecute me?'</p> <p>8. "'Who are you, Lord?' I asked. "'I am Jesus of Nazareth, whom you are persecuting,' he replied.</p> <p>9. My companions saw the light, but they did not understand the voice of him who was speaking to me.</p> <p>10. "'What shall I do, Lord?' I asked. "'Get up,' the Lord said, 'and go into Damascus. There you will be told all that you have been assigned to do.'</p> <p>11. My companions led me by the hand into Damascus, because the brilliance of the light had blinded me.</p> <p>12. "A man named Ananias came to see me. He was a devout observer of the law and highly respected by all the Jews living there.</p> <p>13. He stood beside me and said, 'Brother Saul, receive your sight!' And at that very moment I was able to see him.</p>
---	--

주말씀 내 발에 등이요



개역한글

NIV

사도행전 22 :3~22

Acts 22 :3~22

14. 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15. 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16. 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17. 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 사몽간에  
 18. 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네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19. 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20. 주의 증인 스테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21. 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22.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 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 둘 자가 아니라 하여

14. "Then he said: 'The God of our fathers has chosen you to know his will and to see the Righteous One and to hear words from his mouth.  
 15. You will be his witness to all men of what you have seen and heard.  
 16. And now what are you waiting for? Get up, be baptized and wash your sins away, calling on his name.'  
 17. "When I returned to Jerusalem and was praying at the temple, I fell into a trance  
 18. and saw the Lord speaking. 'Quick!' he said to me. 'Leave Jerusalem immediately, because they will not accept your testimony about me.'  
 19. "'Lord,' I replied, 'these men know that I went from one synagogue to another to imprison and beat those who believe in you.  
 20. And when the blood of your martyr Stephen was shed, I stood there giving my approval and guarding the clothes of those who were killing him.'  
 21. "Then the Lord said to me, 'Go: I will send you far away to the Gentiles.'  
 22. The crowd listened to Paul until he said this. Then they raised their voices and shouted, "Rid the earth of him! He's not fit to live!"



©구영

## 당신을 향한 노래



글 구성 : 광야소리꾼 구자림

###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 8 38 ~ 39 -

### 이땅에 오직

꿈이 있는 자유

이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불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워 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안에서 열리고 있네

### 왜 내가

송 명 희

왜 내가 외로워하나 친구가 있는데  
왜 내가 슬픔에 잠겨 있나 위로가 있는데  
어찌하여 고통속에 있나 주님이 계시는데  
어찌해서 두려움에 잡혀 있나 인도자 있는데  
내게 샘물이 흐르고 있는데  
왜 내가 목말라 하는가  
나는 광야길을 걸어가네 나그네라  
하나님이 반석을 치시므로 물이 흘러 넘치네  
그 반석 나에게 샘물의 근원이 되셨는데  
왜 나는 목말라 하고 있는가  
내가 주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고 천국의 보화가 되는  
영생의 떡을 나에게 채워주셨네  
하늘로서 내려오신 나를 살게 하시는  
영원한 만나가 내게는 있는데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며  
나는 반석에게로 가서 그 안에 잠기리라  
나는 만나에게 더욱 가까이 하여서  
그에게 속하리라 그리하여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며 주리지 않으리라

다른 친구들과 달리  
고인 다닌다고 말하면서  
고민해본 적 없나요..  
우리 같이 생각해볼까요..  
여러분 친구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죠?!

**요즘  
우리는  
...???**



글 : 강야소리꾼 허 희 정

그 첫 번째 **염색... 두발자유...**

" 3Cm"  
지금 중학교를 거처온 사람들은 알겠지만 학교에서의  
두발제한은 귀밑 몇Cm

" 3Cm ~ '리가 일제시대의 여고생도 아니  
잖아. ?"

" '난반에 아침조회때 학생주임 선생님한테 방학때 들  
인 염색이 남아있다고 애들보는 앞에서 앞머리 잘렸어.  
불량학생 취급 당하면서... ?"

이처럼 학생들의 목소리 또한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 ' 현재  
3Cm ...  
여학생은 어깨까지 길러 15Cm  
는 등의 새로운 교칙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럼으로서 또  
다시 등장한 문제는 염색이었습니다. 저희 학교 몇명의  
학생들도 염색에 대해 제안한 적이 많았습니다.

이집트 여성들이 ' ' 태양광선  
을 쬐어 머리카락을 밝게 만들면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염색!

3 2 !전 현해탄을 건  
너와 이젠 우리나라에서도 대중화가 되었습니다.

초등학생의 검은머리 중간에 내비치는 빨간색 블리치는  
귀여운 애교로 봐줄정도가 되었고, 노란색으로 머리전  
체를 염색한 초등학생이나 중고생들도 그리 특별해 보  
이지 않을 정도로 보편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 광학  
중의 이야기지만요.....

그럼 한 친구의 인터뷰한 내용을 볼까요??

" 염색하면 다 날라린가요  
너무 웃겨요. ....  
어린꼬마들이 염색하면 이쁘고 귀여운데 중. !생들이  
조금만 물들이면 우릴 날라리로 보죠.  
염색이 공부랑 무슨 상관이 있죠? 멋있고 예쁘지 않나  
요? ??  
애들중에서 튀고도 싶고 예뻐보이고 싶은 10 1의 욕구  
는 조금 인정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도 너무 빨간색, . 다만 자연  
스러운 갈색 정도는 허용 안됩니까? "

10 |에게 자유로운 이성교제나 인터넷등의 사회적육구가 충족도니 사회에서 학교란 존재는 그저 억압하고 다그치는 존재로만 느껴질 것입니다.

또한, ' ' 하고 느끼는 우화심리 때문에 열색을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 무리, , 친구들 사이에서 조금은 튀고싶은 그런 이 유 말이죠...

모방심리 또한 10 . 걸마 전 컴백한 서태지는 빨간색 레계풍 헤어스타일로 10 대에게 더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또한 거리로 나가면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각종 열색약도 한 몫 합니다. 굳이 미용실로 찾아가서 비싼 돈 내고 하지 않아도 만원이하로도 질 좋고 다양한 색깔의 열색약으로 ' '(?) | 가능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 중. !생의 자녀를 두신 학부모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 미용을 목적으로 한 열색은 반대해요.. 열색은 한번 시작하면 계속하게 되고 반복되는 열색으로 인해 인체에 해를 끼칠 수도 있잖아요. , 잦은 열색으로 인한 시력감퇴 또는 머릿결이 상하게 되죠. 좋은 머릿결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단지 호기심이라는 명목 하에 노란색이라든가 갈색으로 부분열색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내가 하고 싶기 때문에 주위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행동은 더불어 사는 사회가 아닌 혼자서 사는 세상이 되어 버릴 것이예요. ? 안 그래요?? “

현재 부모세대도 70 ' | 항거하며 몰래 머리를 기른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유행하던 미니스커트나 나발바지가 지금 10 |에게 특별해 보이지 않듯이 열색이 10 21 |기를 대표하는 문화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머리열색의 허용여부가 아닌 두발 자유화 사안을 통해 10 , 학부모와 함께 타협점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닐까요? 필자는 솔직히 열색을 하고 있지 않지만 가끔은 나도 저렇게... , 그렇지만 아직은 찬성도 반대도 아닙니다\*\*\* 어쨌든, 10 |와 학부모와의 갈등이 하루빨리 풀리길 바랍니다. 10 |들에게도 서로의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 이번 호부터 같이 생각해 보는 요즘 우리는... |각 면을 마련했습니다. 같이 고민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 ? http://www.onnuri.or.kr . 차근 차근 따라 들어오세요...) 다시 한번 물으께요? ? 예수님은 머리가 하십니까? 아니 예수님이 머라하십니까? 의견있는 친구들은 댓글을 보내주세요. 5mercy@hitel.net .

### 친구들 보세요.....



- 학년별 수련회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꼭 참석  
해주세요.  
 고1 : 1 17 10:00 ~ 17:00  
 고2 : 1 18 10:00 ~ 17:00  
 고3 : 1 19 19:00 ~ 21:30
- DJC 18 ! 저녁 군  
인교회 건축을 위한 청소년 음악회에 참여합니  
다. ! DJC.
- 파워겨울캠프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릴까요!  
2 20 ~ 22 !
- 고등부 다윗학교 일행 ( 23 ) 기 태  
국 아웃리치를 마치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파워스테이션이 있습니다.  
2 2 ~ 3 6:00

### 생님들 보세요.....



- 예배 후 교사수련회가 있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 여선교회관으로 출발합니다. 6:30 까지  
함께 합니다. 준비한 마음과 손길들에 감사드  
립니다.



궁금하시죠?  
떨까?

기대하시라.... !  
**학년별 수련회 !!!**

- 1등부 예배  
매주일 선교관 두란노홀 08:45
- !기시는 분들  
신 도 배 전도사님  
권 용 갑 전도사님
- !야소리꾼들  
정민정, , , 은주